

2021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⑤	2	④	3	③	4	②	5	④
6	③	7	⑤	8	⑤	9	⑤	10	④
11	①	12	②	13	⑤	14	②	15	①
16	①	17	③	18	④	19	④	20	②
21	②	22	④	23	③	24	⑤	25	①
26	②	27	④	28	①	29	①	30	③
31	②	32	③	33	⑤	34	②	35	④
36	⑤	37	⑤	38	④	39	①	40	②
41	①	42	③	43	③	44	③	45	④

해설

[1~3] 화법

1.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확인하기

2문단에서 60분 고속도로와 10분 고속도로 표지판의 예를, 4문단에서 경기도에 있는 지방도 표지판의 예를 언급하며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오답풀이] ① 발표 자료의 출처를 찾을 수 없다.

② 5문단에서 마무리를 위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발표의 중간중간마다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③ 도로 표지판의 역사적 유래와 가치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④ 발표자가 도로 표지판과 관련된 경험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지방도 모두 남북으로 연결된 도로에는 홀수 번호가, 동서로 연결된 도로에는 짝수 번호가 부여된다. 따라서 (나)가 가리키는 도로는 동서가 아닌 남북 방향으로 연결된 도로이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따르면, 동서로 연결된 도로는 위쪽으로 갈수록 큰 번호가 부여된다. 따라서 30번 고속도로는 10번 고속도로의 위쪽, 60번 고속도로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② 3문단에 따르면, 일반국도 중 한 자리 번호가 부여된 경우는 두 자리 이상의 번호가 부여된 일반국도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③, ⑤ 4문단에 따르면, (다)처럼 10××인 도로는 경상남도의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지방도이다.

3. [출제의도] 청중의 반응 분석하기

<보기>의 학생은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삼각형과 육각형의 도로 표지판을 떠올리며,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의미를 알아보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풀이] ① 발표 내용을 객관적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② 발표했던 경험을 떠올리고 있지 않다.

④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를 떠올렸지만, 발표자에게 질문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⑤ 발표에서 제시한 정보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지 않다.

[4~7] 화법/작문

4.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이해하기

진행자는 방송 인터뷰 중 '올해는 나눔 마당, 실속 마당, 체험 마당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말씀이죠?'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시 시장의 앞선 발표 내용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진행자는 △△시 시장에게 인터뷰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지 않았다.

③ 진행자는 친숙한 소개에 빗대어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지 않았다.

④ △△시 시장은 진행자의 질문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답변하지 않았다.

⑤ △△시 시장은 인터뷰를 마무리할 때 기대되는 긍정적 결과를 언급하지 않았다.

5.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의 자료 중 '표'는 ㉠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시 시장은 이 자료를 활용하여 중고품 기증자에게 돌아갈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에 대한 답변에서 △△시 시장은 '사진 1'을 활용하여 행복 나눔 장터의 운영이 자원 재활용 및 환경 보호와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② ㉡에 대한 답변에서 △△시 시장은 '동영상'을 활용하여 행복 나눔 장터를 찾은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③ ㉢에 대한 답변에서 △△시 시장은 '사진 2'와 '사진 3'을 활용하여 행복 나눔 장터에서 판매하는 지역 농산물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을 언급하고 있다.

⑤ ㉤에 대한 답변에서 △△시 시장은 '사진 4'를 활용하여 중고품의 기증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 수립하기

(나)의 건의문에는 다른 지역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고품 나눔 장터의 현황이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 1학년 김○○임을 밝히고 있다.

② 2문단에서 행복 나눔 장터를 다녀온 후 우리 학교에도 중고품 나눔 장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느꼈음을 언급하였다.

④ 3문단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물건을 그냥 버리거나 집에 방치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⑤ 4문단에서 교장 선생님께 중고품 나눔 장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며 글을 마무리하였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글쓰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로 '나눔의 정신을 배울 것'임을 언급하였고, 학교가 얻을 수 있는 홍보 효과로 '자원 절약을 실천하는 배움터'라는 이미지를 얻을 것'임을 언급하였다.

[오답풀이] ① 학생과 학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모두 언급하지 않았다.

②, ③ 학교가 얻을 수 있는 홍보 효과를 언급하지 않았다.

④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언급하지 않았다.

[8~10] 작문

8.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나)에는 예상되는 반론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탄소발자국'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구에 남기는 흔적'으로, 2문단에서 지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구를 병들게'하는 것으로 비유하여, 디지털 탄소발자국에 대한 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② 1문단에서 '기후변화', '지속가능', '탄소발자국' 등의 시사 용어를 언급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③ 3문단은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실천 방안을 스마트폰과 관련지어 세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의 ㄱ-2와 ㄴ을 통해 디지털 탄소발자국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는 없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은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뒷문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감소시키다'는 '덜어서 적게 하다'는 의미로, '줄이다'와 의미가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2문단의 마지막 문장은 그 앞뒤 문장이 인과 관계로 연결되므로 이를 연결하는 역접의 접속어 '그러나'를 '그래서'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멀리하다'는 '가까이 하지 않고 거리를 두다'는 의미의 타동사이므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문맥을 고려할 때 목적어 '스마트폰을'을 첨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눈을) 일치시켜 마주 바라보다'는 의미의 단어는 '맞추다'이다.

[11~15] 문법

11. [출제의도] 음운 변동 이해하기

'굳하다'는 'ㄱ'과 'ㅎ'이 'ㄷ'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되어 [구티다]가 된 후, 'ㄷ'이 'ㅈ'으로 교체(구개음화)되어 [구지다]로 발음된다.

[오답풀이] ② '미닫이'는 'ㄷ'이 'ㅈ'으로 교체(구개음화)되어 [미다디]가 [미다지]로 발음된다. 이때 축약은 일어나지 않는다.

③ '빨강다'는 'ㅎ'과 'ㄷ'이 'ㄷ'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되어 [빨가타]로 발음된다. 이때 교체는 일어나지 않는다.

④ '숨이불'은 'ㄴ'이 첨가되어 [숨니불]로 발음된다. 이때 교체와 축약은 둘 다 일어나지 않는다.

⑤ '잡히다'는 'ㄴ'과 'ㅎ'이 'ㄷ'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되어 [자피다]로 발음된다. 이때 교체는 일어나지 않는다.

12. [출제의도] 안건문장 이해하기

㉠은 명사절로 안건문장으로, 절 전체가 명사처럼 쓰여 서술어 '알리며'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13. [출제의도] 이어진문장 구분하기

앞 절인 '갑자기 문이 열리다'와 뒤 절인 '사람들이 놀랐다'가 연결 어미 '-어서'로 이어지며,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원인'의 종속적인 의미 관계로 해석된다.

[오답풀이] ① 앞 절인 '무쇠도 갈다'와 뒤 절인 '바늘이 된다'가 연결 어미 '-면'으로 이어지며,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조건'의 종속적인 의미 관계로 해석된다.
 ② 앞 절인 '하늘도 맑다'와 뒤 절인 '바람도 잠잠하다'가 연결 어미 '-고'로 이어지며, 앞 절과 뒤 절이 '나열'의 대등한 의미 관계로 해석된다.
 ③ 앞 절인 '나는 시험공부를 하다'와 뒤 절인 '(나는) 학교에 간다'가 연결 어미 '-러'로 이어지며,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목적'의 종속적인 의미 관계로 해석된다.
 ④ 앞 절인 '함박눈이 내렸다'와 뒤 절인 '날씨가 따뜻하다'가 연결 어미 '-면'으로 이어지며, 앞 절과 뒤 절이 '대조'의 대등한 의미 관계로 해석된다.

14. [출제의도] 동사와 형용사의 품사 파악하기

'밝다'는 동사와 형용사로 모두 쓸 수 있다. 그런데 ㉠에서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이 결합하였으므로 이때 '밝다'는 동사이다. ㉡의 '밝는다'는 '밝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라는 뜻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환해진다는 '작용(어떤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므로 동사이다.

15.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파악하기

㉠의 '열어'는 '닫혀거나 잠긴 것을 트거나 벗기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의 '열어'는 '모임이나 회의 따위를 시작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② ㉠의 '먹고'는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의 '먹지'는 '음식을 입을 통해 배 속에 들여보내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의 '잡고'는 '사람이 시간이나 장소, 방향 따위를 끌라 정하거나 차지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의 '잡았다'는 '일, 기회 따위를 얻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의 '갔다'는 '직책이나 자리를 옮기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의 '갔다'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 이동하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의 '떨었다'는 '시간적으로 사이가 길거나 오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의 '떨었다'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16~20] 독서(과학)

<출전> 식육의 작용 원리(계구성)

개관: 이 글은 식육 중추와 전두 연합 영역을 중심으로 식육의 작용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식육은 시상 하부의 식육 중추에 있는 섭식 중추와 포만 중추의 작용으로 자연스럽게 조절되는데, 식육 중추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인슐린, 지방산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이때 포도당과 인슐린은 포만 중추의 작용은 촉진하고 섭식 중추의 작용은 억제하며, 지방산은 섭식 중추의 작용은 촉진하고 포만 중추의 작용은 억제한다. 한편 취항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식육은 전두 연합 영역의 영향을 받는데, 그 사례로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디저트를 먹는 현상을 들 수 있다.

16. [출제의도] 핵심 정보 파악하기

이 글은 '식육 중추와 전두 연합 영역'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식육의 작용 원리'를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식육의 개념과 특성'은 1문단에 국한되어 있고, '영양소의 종류와 역할'은 2문단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 내용을 아우르지 못하므로 각각 표제와 부제로 적절하지 않다.
 ③ '식육이 생기는 이유'는 표제로 적절하다. 하지만 '탄수화물과 지방'은 2문단에 언급되어 있을 뿐 그 '영향 관계'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부제로 적절하지

않다.
 ④ '전두 연합 영역의 특성'은 3~4문단에 국한되어 있고, '디저트의 섭취'는 3~4문단에 언급되어 있지만 '소화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 내용을 아우르지 못하므로 각각 표제와 부제로 적절하지 않다.
 ⑤ '전두 연합 영역의 여러 기능'은 3~4문단에 국한되어 있고, '포도당과 지방산'은 2문단에 언급되어 있지만 그 '작용 관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 내용을 아우르지 못하므로 각각 표제와 부제로 적절하지 않다.

17.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4문단에 따르면, 전두 연합 영역의 신경 세포가 '맛 있다'와 같은 신호를 섭식 중추로 보내면, 거기(섭식 중추)에서 오렉신이라는 물질이 나온다. 따라서 위의 운동에 관여하는 오렉신은 전두 연합 영역이 아니라 섭식 중추에서 분비된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따르면, 식육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② 1, 2문단에 따르면, 인간의 뇌에 있는 시상 하부는 인간의 식육에 영향을 끼친다.
 ④ 4문단에 따르면, 배가 차지 않은 상태에서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특정한 맛에 절렸기 때문이다.
 ⑤ 3문단에 따르면, 전두 연합 영역은 정신적이고 지적 활동을 담당하는 곳이지만 식육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18.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배가 찬 상태(㉠)에서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포만 중추의 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가 찬 상태에서 디저트를 먹는 현상은 모순적이라 볼 수 있다.

19. [출제의도] 정보 간의 관계 파악하기

2문단에 따르면, ㉠은 포도당, ㉡은 인슐린, ㉢은 지방산이다. 그런데 식사를 하면,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변하고, 이로 인해 체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이후 포도당(㉠)과 인슐린(㉡)은 혈액을 타고 시상 하부로 이동하여 포만 중추의 작용은 촉진하고 섭식 중추의 작용은 억제한다. 반면에 식사 후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중성지방이 분해되어 지방산(㉢)이 생긴다. 이후 지방산(㉢)은 혈액을 타고 시상 하부로 이동하여 섭식 중추의 작용은 촉진하고 포만 중추의 작용은 억제한다.

[오답풀이] ① 혈관 속에 포도당(㉠)의 양이 늘어나면 인슐린(㉡)이 분비된다.
 ② 혈관 속에 포도당(㉠)과 인슐린(㉡)의 양이 많아지면 배가 부른 느낌이 든다.
 ③ 포도당(㉠)과 지방산(㉢)은 시상 하부의 명령을 식육 중추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⑤ 인슐린(㉡)은 피부 아래의 조직에 저장지방으로 저장되지 않는다.

20.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3문단에 따르면, A는 섭식 중추가 아니라 전두 연합 영역의 작용으로 뷔페의 과자가 맛있었다고 떠올렸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 따르면, A는 오렉신의 영향으로 위에 후식이 들어갈 공간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B는 영양분의 섭취와는 무관하게 취항에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 따르면, B는 전두 연합 영역의 작용으로 건강을 위해 입맛에 맞지 않는 녹차를 마셨음을 알 수 있다.
 ⑤ 1문단에 따르면, A와 B는 디저트를 둘러보기 전

까지 식사를 하였으므로 배가 점점 불러서 섭식 중추의 작용이 점점 억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1~25] 독서(인문)

<출전>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관점(계구성)

개관: 이 글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주희가 인간의 본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설명한 것과 달리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기호로 설명하였다. 정약용은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의 원인을 선천적 요인으로 본다면 행위를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희를 비판하고,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약용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우한다는 추서에 따라 선한 행위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21.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이 글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희의 관점을 비판하는 정약용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인간의 본성에 대한 두 관점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점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③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이 타당하지 여부를 다양한 입장에서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④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절충한 새로운 관점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인간의 본성에 대해 대비되는 관점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은 드러나 있지 않다.

22. [출제의도] 세부 정보 확인하기

3문단에 따르면, 정약용은 생존에 필요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감각적 욕구를 일부 긍정하였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따르면, 주희는 인간에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지성이 있다고 보았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주희는 기질이 맑으면 선한 행위를 하고 기질이 탁하면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4문단에 따르면, 정약용은 추서에 따라 선한 행위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정약용은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의 원인을 기질이라는 선천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행위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희를 비판하였다.

23. [출제의도] 핵심 개념 확인하기

㉠은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지니고, ㉡은 인간만이 지닌다.
[오답풀이] ① ㉠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악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고, 인간은 자유 의지에 따라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기호이다.
 ② 생존에 필요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은 ㉠이다.
 ④ ㉠과 ㉡은 모두 욕구를 즐기고 좋아하는 경향성이다.
 ⑤ 타인의 잘못을 덮어 주는 행위는 용서이고, ㉠, ㉡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24.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4문단에 따르면, 정약용은 용서로 거짓말을 용인해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B가 추서로 A의 거짓말을 용인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따르면, 주희는 인간에게 본연지성이 있고,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는 기질에 의

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주희는 거짓말을 한 것과 무관하게 A에게 본인지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주희는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기질의 맑고 탁함에 따라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희는 평소 청소를 잘 하지 않는 A와 항상 성실히 청소하는 B의 기질이 서로 다르다고 볼 것이다.

③ 3문단에 따르면, 정약용은 선한 행위를 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온전한 인간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약용은 A가 책임감 있게 청소하게 된 것이 A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정약용은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따를 경우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약용은 A가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따랐기 때문에 청소를 잘 하지 않았던 행동에서 책임감을 갖고 청소하는 행동으로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것이다.

25.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와 ㉡의 '들다'는 모두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사실을 가져다 대다'의 의미이다.

[오답풀이] ㉡의 '들다'는 '병이 생기자'의 의미이다. ㉢의 '들다'는 '사람이나 물건이 좋게 받아들여지다'의 의미이다.

㉣의 '들다'는 '빛, 별 따위가 어디에 미치다'의 의미이다. ㉤의 '들다'는 '안에 담기거나 그 일부를 이루다'의 의미이다.

[26~28] 문학(현대소설)

<출전> 이태준, 「복덕방」

개관: 이 작품은 1930년대 경성(서울) 외곽의 복덕방을 배경으로, 땅 투기 열풍에 휩쓸려 파멸하는 한 농인을 통해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세대의 궁핍함, 좌절 등을 그린 소설이다. 주인공인 안 초시는 자신에 대한 성찰이나 사회 현실에 대한 자각 없이 물질적인 욕심만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인물이다. 또한 안 초시의 딸은 인간적인 정보보다 물질적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당시의 세태를 잘 보여 주는 인물이다.

26.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A]에서는 돈을 두고 갈등하는 모습이 안 초시와 그의 딸의 대화와 서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B]에서는 안 초시의 딸이 투자한 사업이 모세가 꾸민 연극이었고 결국 투자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요약적 서술을 통해 밝히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에서는 외양 묘사가 드러나지 않고, [B]에도 배경 묘사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이 작품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A]에서는 서술자가 사건에 대해 평가하고 있지 않고, [B]에서는 서술자가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대해 예측하고 있지 않다.

④ [A]에서는 대화를 통해 순차적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⑤ [A]에서는 향토적 소재가 드러나지 않는다.

27.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이해하기

안 초시가 딸에게 축항 사업 소식을 전해주고 출자를 권유하여 딸이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안 초시의 딸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해 아버지 대신에 청년에게 투자에 관한 일을 맡기고 있으므로 안 초시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려는 딸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8.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라 감상하기

안 초시가 딸에게 출자를 권유한 부지는 건설 사업지로 최종 확정된 부지도 아니고 안 초시가 직접 투

자한 것도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투자를 통해 한 번에 큰 이익이 날 것이라 기대하는 모습에서 한탕주의를 엿볼 수 있다.

③ 안 초시의 딸은 '연구소 집'을 담보로 큰돈을 빌려 투자하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의 부동산 투기 열풍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축항 후보지'에 땅을 샀던 모세는 자신의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연극을 꾸민다고 볼 수 있다.

⑤ 투자 실패 후 안 초시는 가족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물질만능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9~32] 문학(고전소설)

<출전> 각자 미상, 「홍부전」

개관: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창작된 판소리계 소설로, 당시 서민 계층의 삶의 모습과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표면적인 주제는 '권선징악과 형제 간의 우애'이지만, 그 이면에는 유방 농민과 신흥 부농(富農)의 갈등상이 드러나 있어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와 시대 의식을 엿볼 수 있다.

29.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홍부 부부가 박을 타는 반복적인 행위와 그 결과로 박에서 나온 물건들을 나열하여 홍부 가족이 부자가 되는 모습을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오답풀이] ② 서술자는 작품 외부에서 인물과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서술자를 작중 인물로 볼 수 없다.

③ 제비가 은혜를 갚고, 박에서 재물이 쏟아지는 등 전기(傳奇)적인 요소가 일부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주인공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④ '제비 왕'이라는 권위 있는 인물이 등장하지만 '제비 왕'이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꿈 속 장면은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서술한다고 볼 수 없다.

30.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확인하기

제비가 홍부 앞에 박씨를 떨어뜨리기 전까지 홍부는 제비가 무엇을 물고 왔는지 알지 못했다. 따라서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홍부가 제비를 반겼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홍부 부부는 '방아 찧기'부터 '이 집저 집 돌아가며 이영 율기'까지 온갖 품을 다 팔았다. 따라서 홍부 부부가 먹고 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박에서 나온 묵수들이 '명당을 가려 터를 잡고 집을 지었다'. 따라서 묵수들이 홍부 부부를 위해 좋은 터에 집을 지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제비는 제비 왕에게 '홍부의 구조를 받아 살아서 돌아왔으며' '은공을 만분의 일이라도 갚고 싶어 하였다'. 따라서 제비는 홍부에게 은혜 갚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놀부는 홍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놈이 도둑질을 했다?'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홍부의 집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홍부가 부자가 된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31.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놀부가 재물이 나오는 화초장을 직접 짚어지고 간 것은 자신의 집으로 화초장을 빨리 옮기고 싶은 욕심 때문이므로 이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백성들의 노력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홍부 부부가 온갖 일을 하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던 조선 후기의 시대적 배경을 엿볼 수 있다.

③ 홍부는 제비 왕이 전해 준 박씨를 심어 큰 부자가 되었으므로 초월적인 존재인 제비 왕의 도움으로 홍부가 가난을 극복했음을 알 수 있다.

④ 홍부가 타는 박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세간불이와 곡식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당시 백성들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홍부가 심은 박씨에서 사요일 만에 박이 열리고, 박속에서 순금 계가 나오는 장면에서 홍부가 받은 보상의 환상성을 확인할 수 있다.

32. [출제의도] 속담 활용하여 인물 평가하기

윗글에서 놀부는 홍부가 부자가 된 것을 질투하여 심술을 부리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으므로, 남이 잡히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뜻을 가진 속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속담은 남의 재앙을 더욱 키우게 만드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속담이다.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은 일이 잘못된 후에 손을 써야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④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는 속담은 제멋대를 지키지 못하고 이익이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언행을 바꾸는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속담이다.

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않는다'는 속담은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은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33~37] 독서(사회)

<출전> 수요의 가격탄력성(제구성)

개관: 이 글은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다루고 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세 요인을 대체재의 존재 여부, 필요성의 정도,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산출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총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33.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2문단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체재의 존재 여부와 필요성의 정도,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으나 세 요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은 1문단에서, ②는 3문단에서, ③은 4문단에서, ④는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34.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2문단에 따르면, 필요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필수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로 비탄력적이고, 사치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로 탄력적이다. 그러므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는 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보다 쌀을 필수재로 인식하므로 쌀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오토바이가 주요 이동 수단인 나라에서는 자동차를 주요 이동 수단으로 하는 나라보다 자동차를 사치재로 인식하므로 자동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이다.

35. [출제의도] 세부 정보 추론하기

4문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이 증가하지만, 탄력적인 경우에는 총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판매자의 총수입 증가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파악하는 것은 판매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오답풀이] ①, ②, ③,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와 그에 따른 총수입의 증감이므로 소비자

의 소득 규모, 판매 상품의 문제점, 생산 단가, 판매자의 판매 수입과 소비자의 지출액 차이를 파악할 수는 없다.

36.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A]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수요량 변화분/기존 수요량)을 가격의 변화율(가격 변화분/기존 가격)로 나누어야 한다. 그러므로 김밥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김밥 수요량의 변화율인 1/5(20개/100개)을 가격 변화율인 1/4(500원/2,000원)로 나누면 4/5가 된다. 4/5는 1보다 작으므로 김밥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영화 관람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인 2/5(1,000장/2,500장)를 가격 변화율인 1/5(2,000원/10,000원)로 나누면 2이다. 그러므로 영화 관람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이다.

- [오답풀이] ① 김밥 가격의 변화율은 1/4이고, 수요량의 변화율은 1/5이므로, 김밥은 가격의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크다.
② 영화 관람권 가격의 변화율은 1/5이고, 수요량의 변화율은 2/5이므로, 영화 관람권은 가격의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작다.
③ 김밥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4/5로 1보다 작지만, 영화 관람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이므로, 모두 1보다 작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김밥은 4/5이고, 영화 관람권은 2이므로 이 둘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같지 않다.

37.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산출(算出)'은 '계산하여 냄'이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어떤 일에 필요한 돈이나 물자 따위를 내놓음'을 뜻하는 단어는 '출자(出資)'이다.

[38~42] 문학(고전시가/고전수필)

<출전> (가) 송순, 「실 년을 정영하여~」 / (나) 율백규, 「농가구장(農歌九章)」 / (다) 한백겸, 「접목설(接木說)」

개관: (가)는 자연과 하나된 물아일체의 경지와 안빈낙도하는 삶의 자세를 노래한 평시조이다. (나)는 전형적인 농촌 생활을 일과의 진행 순서에 따라 노래한 전 9수의 연시조이다. 농촌의 일상과 농사일, 농촌 삶의 흥겨움 등을 사실적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다)는 보잘것없는 복숭아나무에 흉도 가치를 접붙여 아름다운 나무로 변화시킨 접목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기록한 고전수필이다.

38.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이해하기

(가)에서는 '흔 간'이, (나)에서는 '둘러내자', '돌아가자' 등이 반복되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에서 색채어는 활용되지 않는다.
③ (다)에서 음성 상징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⑤ (가)에는 구체적인 묘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계절감도 나타나지 않는다.

39.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제1수>에서 농부가 농기구를 가지고 밭을 가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② <제3수>의 '잡초 짙은 긴 사래 마주 잡아 둘러내자'에서 농부들이 함께 잡초 뽑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제4수>의 '청풍에 옷깃 열고'에서 옷깃을 열고 바람을 쐬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제5수>의 '내 밤 많을세라 내 반찬 적을세라'에서 농부들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6수>의 '해 지거든 돌아가자 ~호미 베고 돌

아을 제'에서 해 질 무렵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농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4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종장에서 '강산'을 '둘러 두고 보리라'라고 한 것은, 화자가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강산'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가)의 화자가 자연 속에 지은 '초려 삼간'은 초라한 세 칸의 초가집으로, '둘', '청풍'과 함께 '계하는 공간'을 의미하므로 안빈낙도하며 사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목은 풀'을 매는 '밭'은 건강한 노동으로 사는 삶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의 한 그릇의 '보리밥'과 한 사발의 '콩일 나물'은 농부들이 일한 뒤 먹는 점심을 나타내므로 노동의 현장에서 맛보는 소박한 음식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농부가 듣는 '우배초적'은 건강한 노동 후의 흥취로 볼 수 있다.

41. [출제의도] 구절의 기능 파악하기

글쓴이는 복숭아나무의 접목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밝힌 후 ㉠을 인용하였으며, '이것을 보고 어찌 스스로 힘쓰지 아니하겠는가.'라고 언급하며 자신의 깨달음을 「주역」이 가진 권위를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2문단에 따르면, '심은 땅의 흠도 바꾸지 않고 그 뿌리의 중차도 바꾸지 않았으며 단지 접붙인 한 줄기의 기운'으로 복숭아나무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였으므로, 사물의 '자태가 돌연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 '근본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보잘것없는 복숭아나무를 소재로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② 1문단에 막 씨의 도움으로 접목을 한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의 '마음을 분발하여 뜻을 불러일으키기를 권하지 아니하겠는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45] 문학(현대시)

<출전> (가) 김종길, 「정탄제」 / (나) 한용운, 「수(鑄)의 비밀」

개관: (가)는 성탄제 무렵의 각박한 도시에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붉은 산수유 열매'에서 느꼈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작품이다. (나)는 임이 부재하는 현실 속에서도 임의 웃을 지으며 재회를 준비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4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나)의 2연의 9행에서 '깃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라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당신'을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다.

- [오답풀이] ① (가)에는 수미상관의 방식이 사용되지 않으며,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다.
② (가)는 '-었다' 등의 종결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에도 '-습니다', '-입니다' 등의 종결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④ (가), (나) 모두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⑤ (가)에는 유년 시절에서 현재까지의 시간 흐름이 나타나지만, 이것이 화자의 태도 변화와는 상관이 없으며, (나)에는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44. [출제의도] 시적 공간의 의미 이해하기

㉠은 '당신'과의 만남을 간절히 바라지만 '당신'의 부재로 인해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오답풀이] ① ㉠은 자아 성찰과 관련이 없는 공간이다.
② ㉠은 '할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대상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은 수를 놓으며 '당신'을 기다리는 화자의 일상적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⑤ ㉠과 ㉡은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서느런 옷자락'은 유년 시절에 아픈 화자를 위해 눈속을 헤치고 산수유 열매를 구해오신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따라서 현대인의 메마른 삶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어린 화자를 돌보는 모습에서 가족의 보살핌을 받았던 화자의 성장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② '눈 속'을 헤치고 구해온 '약'에 담긴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은 현대인의 메마른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애로 확장될 수 있다.
③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은 '눈'을 의미하며, 어린 시절 아버지가 눈 속을 헤치고 산수유 열매를 따 오신 날과 연결되어 화자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산수유 열매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므로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은 화자에게 할머니와 아버지가 보여 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